

## 제임스 M. 배리 (1860~1937)

1860년 5월 9일 스코틀랜드 키리무어에서 아홉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배리는 극작가로는 성공했지만 개인적으로 불행했다. 그의 어머니는 형 데이비드를 편애했고, 형이 사고로 죽자 소원해진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 이후 배우인 메리 앙셀과의 결혼생활 또한 순탄치 못했다.

일찍부터 희곡과 비평에 관심이 많던 배리는 대학 졸업 후 런던에서 신문 기자가 되었다. 이때 데이비스 부부를 만나게 되고 이들의 어린 아들 다섯 명을 피터 팬의 모델로 삼게 된다. 성인 대상의 소설과 희곡을 주로 쓰던 배리는 1902년 《작고 하얀 새 The Little White Bird》라는 소설을 발표했는데, 이 소설에 살짝 담겨 있던 피터 팬 이야기가 후에 어린이를 위한 희곡 《피터 팬》으로 다시 쓰여 1904년 연극으로 상연된다. 이후 《피터 팬》은 《켄싱턴 공원의 피터 팬 Peter Pan in Kensington Garden》(1906), 《피터와 웬디 Peter and Wendy》(1911)라는 소설로 다시 쓰인다.

배리는 1913년 준남작의 지위를 수여받고, 1922년 메리트 훈장을 받는 등 작가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다가 1937년 7월 19일 세상을 떠났다. 동심의 세계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어른의 심리를 정확히 포착한 《피터 팬》의 작가 제임스 M. 배리. 그 자신이 바로 ‘어른이 되기 싫은 어른’이었다.

「**피터 팬**」은 행복이 넘치는 웬디의 집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곳엔 웬디와 함께 상냥한 어머니와 듄직한 아버지, 귀여운 동생 존과 마이클, 그리고 온순한 유모견 나나가 살고 있다. 어느 날 밤, 어머니와 아버지가 파티에 간 사이, 웬디는 집으로 그림자를 찾으러 온 어른이 되지 않는 소년 피터 팬과 만난다. 피터 팬의 그림자를 꺾매준 웬디

는 피터 팬이 살고 있는 꿈과 희망의 나라 네버랜드에 초대 받아 동생들과 함께 날아간다. 그곳에는 유모차에서 떨어져 행방불명이 된 6명의 사내아이, 요정 텅커벨, 인어들, 인디언뿐 아니라 호시탐탐 피터 팬을 없앨 기회를 노리는 쇠갈고리 손을 가진 사납고 음흉한 후크 선장이 기다리고 있다. 웬디는 그들과 함께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여러 모험을 경험한다.

연극 《피터 팬》이 1904년 12월 27일 런던의 한 극장에서 초연됐을 때 성공을 점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복잡한 등장인물과 스토리 구성도 문제였지만 어른이 되기를 거부한 ‘맹랑한 꼬마’가 부모의 보호도 없이 흥미진진한 모험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기본 설정이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대단한 파격이었다. 그러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당시 영국 언론은 “어린보다 어른이 열광하는 연극”이라고 평했다.

‘피터 팬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만든 카일리 박사는 “피터 팬에 대한 동경은 경제가 어려워울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힘든 일상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욕망이 피터 팬에 열광하는 ‘어른 아이’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 제 1 장 ] 집에서**

**p. 12-13** 아이들은 모두 자란다. 한 아이만 빼고. 그들은 두 살만 되면 그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웬디 달링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이기도 했다.

달링 씨네는 런던 14번지에 살았다. 웬디는 맏아이였다. 그 다음에 존과 어린 마이클이 태어났다. 아이들에게는 유모가 있었다. 그 유모는 나나라는 커다란 개였다.

나나의 개집은 아이들 방 가까이에 있었다. 아이들이 울면, 나나는 늘 잠에서 깬다. 나나는 보물이었다. 달링 부인은 나나 없이는 뭘 할지를 몰랐다.

달링 씨네는 행복한 가족이었다. 피터 팬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p. 14-15** 어느 날 저녁, 달링 부인이 잠자리에 아이들을 누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바느질을 하기 위해 난로가에 앉았다. 곧 그녀는 잠이 들었다.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다. 네버랜드에 관한 꿈이었다. 갑자기 창문이 흰 열렸다. 나뭇잎 옷을 입은 남자 아이가 있었다. 그는 고양이처럼 바닥에 뛰어내렸다. 묘한 작은 불빛 하나가 그의 옆에서 날았다. 그녀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방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에 나타난 소년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다. 피터 팬이었다!

복도 아래에서, 나나가 그 비명 소리를 들었다. 나나는 방으로 뛰어 들어가 피터에게 덤벼들려고 했다. 하지만 피터는 너무 빨랐다. 그 개는 피터의 그림자만 겨우 붙잡을 수 있었다. 나나는 피터의 그림자를 입에 물었다. 피터는 달아났다. 그는 창 밖으로 뛰어내렸다.

**p. 16-17** 달링 부인은 또 한 번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그 소년이 창 밖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거리로 달려 내려갔다. 그는 거기에 없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거기에도 없었다. 그녀는 반짝이는 빛만 보았다. 그 빛은 별뚱뚱 같았다.

달링 부인은 나나의 입을 유심히 보았다. “이게 뭐지?” 그녀가 물었다. “그 사내아이의 그림자 같은데. 그럼, 그 애는 자기 그림자가 필요해. 이걸 찾으러 다시 올 거야. 서랍장에다 넣어 두어야겠다.” 달링 부인은 피터의 그림자를 접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다.

**p. 18-19** 며칠 밤이 지나고, 달링 씨 부부는 파티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옷을 차려 입었다. 그들은 파티에 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다. 그들은 나나를 위해 아이들 방의 문을 열어놓는 것을 깜빡 잊었다. 나나는 밖에 남겨져 있었고,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다.

하늘에서 가장 작은 별이 외쳤다. “지금이야! 가, 피터!” 반짝이는 불빛이 아이들 방으로 날아 들어왔다. 그것은 텅커 벨이라는 조그만 요정이었다. 그리고 창문이 흰 열렸다. 피터 팬이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탱크.” 그가 속삭였다. “그들이 내 그림자를 어디에 두었는지 아니?” “서랍장 속에.”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그만 종들이 딸랑딸랑 울리는 것처럼 들렸다. 피터는 서랍장을 향해 뛰어 들었다. 그는 서랍장을 뒤졌다. 거기에 그의 그림자가 있었다!

**p. 20-21** 피터는 자신의 그림자 때문에 짜증이 났다. 그는 비누로 그림자를 붙여 보려고 했다. 잘 되지 않았다. 피터는 울기 시작했다. 그의 우는 소리에 웬디가 잠에서 깬다.

“애,” 그녀가 말했다. “왜 울고 있니? 그리고 내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리고 넌 누구니? 그리고...”

“난 피터 팬이야. 내 그림자가 붙지 않아서 울고 있는 거야.”

웬디는 실과 바늘을 꺼냈다. 그녀는 그림자를 다시 꿰매어 붙이기 시작했다.

“넌 참 대단하구나.” 피터가 말했다. “고마워, 피터. 너에게 키스를 해 주고 싶은데.” 웬디가 말했다. “그럼 쥐.” 그가 손을 활짝 폈다. 웬디는 피터가 키스가 뭘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피터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웬디는 대신에 그에게 꿀무를 주었다.

“나도 너에게 키스를 해 주고 싶어.” 피터는 그녀에게 도토리를 주었다.

“고마워, 피터. 네 키스를 줄에 달아 목에 걸게.”

**p. 22-23** 웬디는 그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넌 몇 살이니, 피터?”

“몰라. 난 태어난 날 집에서 도망쳤거든.”

“정말?” 웬디가 물었다. “왜 그랬는데?”

“난 아빠와 엄마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 그분들은 내가 자라면 무엇이 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어. 하지만 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도망친 거야.”

“지금 어디에서 사니, 피터?” 웬디가 물었다. “난 네버랜드에서 집 잃은 소년들과 살아. 집 잃은 소년들은 자신들의 유모차에서 떨어진 아이들 이야. 개네들 엄마와 아빠는 그 애들을 잊어 버렸지. 난 그들의 대장이야.”

“정말 멋진데! 넌 그 아이들이랑 정말 재미있겠구나!”

“응, 그래. 하지만 우린 아주 외로워. 어쨌든 우린 엄마가 없잖아. 난 엄마가 계셨으면 좋겠어. 엄마는 잠잘 때 이야기도 해 주실 텐데.” “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 웬디가 말했다.

**p. 24-25** 피터는 창틀에 앉았다. “그럼, 나와 함께 가는 게 어때?” 네가 아는 이야기들을 내게 모두 들려 줘.” 피터는 웬디의 손을 잡았다.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날아가자.” “피터, 난 날지 못해.” “내가 가르쳐 줄게. 나와 함께 가자.” “음. 잠깐만 기다려, 피터.” 그녀는 동생들을 데리러 뛰어갔다. “일어나! 일어나! 피터 팬이 왔어! 그 애가 우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준과 마이클이 잠에서 깬다. 그러자 피터는 곧 그들에게 요정 가루를 뿌렸다. “어깨를 움직여봐.” 그가 말했다. 곧 그들은 모두 날고 있었다!

## [ 제 2 장 ] 네버랜드

**p. 28-29** “왼쪽으로 두 번째 돈 다음에 아침이 될 때까지 곧장 날아가. 그게 네버랜드로 가는 길이야.” 피터가 말했다. 피터는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그냥 말했다. 웬디, 마이클, 그리고 존은 잠을 입을 채 날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것도 묻지 않고 피터를 따라갔다. 마침내 피터가 멈췄다. “저기 있다.” 그가 말했다.

아이들은 보려고 발끝으로 섰다. 그들 아래로 아름다운 초록색 섬이 있었다. 그 섬은 아이들에게

매우 낮익은 것 같았다. 그들 옆으로, 백만 개의 금 화살이 날아왔다. 섬은 점점 어두워지면서 친근해 보이지 않았다. “해적들이 우리를 발견했어.” 피터가 말했다.

**p. 30-31** 그때, 해적들이 하늘로 대포를 발사했다. 아이들은 모두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날았다. 웬디는 텅커 벨과 자기만 있다는 것을 알았다. 텅커 벨은 화난 표정으로 웬디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웬디를 집투했다.

섬에서는, 집 잃은 소년들이 피터를 찾고 있었다. 해적들은 집 잃은 소년들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인디언들은 해적들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섬 주위를 계속 돌며 걷고 있었다.

소년들은 동물의 가죽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투트즈, 님스, 슬라이틀리, 켈리, 그리고 쌍둥이 형제였다. 그들은 지하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소년들 각자는 모두 비밀 입구용으로 자기만의 속이 빈 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해적을 피해 그들이 숨는 방법이다.

**p. 32-33** “봐!” 님스가 외쳤다. “텅커 벨이 있어.” 소년들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텅커 벨과 웬디를 볼 수 있었다. 잠 을 입고 있는 웬디는 커다란 흰 새처럼 보였다. “서둘러!” 텅커 벨이 외쳤다. “피터는 너희들이 이 여자애를 쏘길 원해.” 투트즈는 웬디에게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웬디의 가슴에 맞았다. 그녀는 땅에 떨어졌다. 소년들이 웬디 주위에 모여들었다. “이건 세기 아니야.” 슬라이틀리가 말했다. “여자잖아!”

그들은 갑자기 피터가 자기들 쪽으로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근사한 소식이 있어, 애들아.” 그가 땅에 뛰어내리며 외쳤다. “내가 너희들에게 엄마를 데려왔어!”

집 잃은 소년들은 떨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우 겁이 났다. “내가 그 여자를 죽였어.” 투트즈가 말했다. “내가 화살로 그녀를 쏘았어.” 피터는 웬디 옆에 무릎을 꿇었다. “봐! 죽지 않았어. 화살이 그녀의 도토리에 맞았어. 내 키스가 그녀의 목숨을 구했어!”

**p. 34-35** “이 여자애를 어떻게 하지?” 피터가 물었다. “그녀를 옮기고 싶지 않아. 그녀를 다치게 할지도 몰라.”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님스가 말했다. “그녀 주위에 집을 짓는 게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이야!” 피터가 말했다.

집 잃은 소년들이 집을 짓기 시작하자, 웬디가 깨어났다. 그녀는 다치지 않았다. 잠을 자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갑자기 그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예쁜 집을 갖고 싶어 / 이제까지 본 중에 가장 작은 집 / 재미있게 생긴 작고 빨간 담과 / 초록 이끼 덮인 지붕이 있는 집.”

집 잃은 소년들은 기뻐했다. 그들은 웬디의 노래 리듬에 맞춰 흥겹게 집을 지었다. 마침내 그들에게 정말로 엄마가 생긴 것 같았다.

**p. 36-37** 한편, 해적들은 여전히 밤 숲을 뚫고 살금살금 걸었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제임스 후크 선장은 그들 중 가장 악질이었다. 그는 벨벳과 레이스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길고 검은 곱슬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진짜 신사처럼 보였다. 오른팔이 있어야 할 자리에 쇠갈고리가 있는 것만 빼면! 그가 피터를 싫어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 갈고리였다.

선장은 자신의 부하인 스미에게 말했다. “피터 팬이 내 팔을 잘라 악어에게 먹이로 주었다. 악어는 네가 맛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때부터 악어는 나를 떠리디닌다.” “어떤 면에선 그건 칭찬인 셈이네요. 선장님이 맛있는 분이려는 거잖아요.” 스미가 말했다. “칭찬이라고! 무슨 얼어죽을 칭찬?” 선장이 외쳤다.

**p. 38-39** “그 악어가 날 따라다니는 건 피터 팬 때문이야! 지금쯤 그 악어가 날 잡아먹었을 거야. 하지만 악어가 시계를 삼켰지. 지금은 시계가 똑딱거리. 그래서 난 똑딱거리는 악어 소리가 나면 달아나는 거야.” “그 시계는 언젠가 똑딱거리는 것을 멈출 거예요.” “나도 알아. 내가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거야. 그리고 이게 다 피터 팬 때문이라고! 난 기다릴 만큼 기다려 왔다. 난 이걸로 그 녀석과 악수를 하고 싶다.” 선장은 자신의 무시무시한 갈고리로 허공을 갈랐다.

갑자기 후크가 필쩍 뛰었다. “이 버섯이 뜨거운데!” 선장과 그의 부하는 조심스럽게 버섯을 살펴 보았다. 그들은 버섯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알아챘다.

**p. 40-41** 두 악당은 땅에서 버섯을 뽑았다. 버섯은 굴뚝 꼭대기에 놓여 있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소년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해적들은 소년들의 지하 보금자리로 연결된 굴뚝을 발견한 것이었다.

웬디는 소년들을 재웠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신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선장은 미소를 지었다. “바로 돌아가자.” 그가 말했다. “커다란 케이크를 구울 거야. 그 위에 초록색 설탕을 듬뿍 뿌려서 말이야! 그런 다음 그걸 거기에 갖다 놓으면, 녀석들이 발견하겠지.” 그가 길 걸려왔다. “녀석들은 엄마가 없어. 그러니까 설탕이 진하게 들어간 케이크를 먹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를 거야. 녀석들이 그걸 다 먹어 버리면, 죽게 될 거라고!”

똑딱똑딱

“악어다!” 후크가 소리쳤다. 선장은 달아났다. 스미는 뒤에 바짝 따라붙었다.

### [ 제 3 장 ] 지하에서

**p. 46-47** 피터는 웬디, 존, 그리고 마이클을 위해 속이 빈 나무를 찾았다. 그들이 그 특별한 장소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지하의 집은 커다란 하나의 방이었다. 버섯들은 의자 대용으로 바닥에서 자랐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집이었다. 웬디는 소년들을 돌보며 아주 바쁘게 지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했다. 밤에는 이야기를 들려 주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늘 할 일이 있었지만 이제까지 살면서 더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

몇 주가 지났다. 가끔씩 웬디는 자신의 집과 부모님이 생각났다. 그러나 존과 마이클은 기억하기 힘들었다.

**p. 48-49** 그들이 사는 지하의 집 옆에는 호수가 하나 있었다.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호수를 상상해 보라. 인어들의 노랫소리가 허공을 가득 채우는 그곳. 그것은 네버랜드의 호수였다. 아이들이 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다.

어느 날, 아이들은 귀양살이 비위로 소풍을 갔다. 귀양살이 비위는 호수 한 가운데에 있었다. 점심 식사 후, 소년들은 잠이 들었다.

서서히 호수 위가 변하기 시작했다. 태양은 미끄러지듯 사라지고 매우 어두워졌다.

피터는 잠을 자면서도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뛰어올랐다. “해적이다!” 그가 외쳤다. 그는 서둘러 소년들을 깨웠다. “물 속으로 뛰어들어!”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p. 50-51** 웬디와 피터는 보트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해적 스타키와 스미가 포로를 데리고 있었다. “저건 타이거 릴리아.” 피터가 속삭였다. “인디언 추장의 딸이지.”

인디언 공주는 퐁퐁 묶여 있었다. 해적들은 그녀를 바위 위에 던졌다. 밀물이 들어오면, 그녀는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그러나 타이거 릴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봐, 거기!” 피터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후크의 목소리와 똑같이 들렸다. “그녀를 풀어 줘. 그렇지 않으면 내 살고리 맛을 보게 될 테다.” 해적들은 피터가 발한 대로 했다. 그들은 타이거 릴리를 풀어 주었고, 그녀는 멀리 헤엄쳐갔다.

**p. 52-53** “이봐, 거기!” 해적들은 후크의 목소리를 또 들었다. “날 보트로 끌어올려줘.” 하지만 이번엔 피터가 아니었다. 진짜 제임스 후크였다! “선장님.” 스미가 말했다. “괜찮으니까?” “우리 계획을 망쳤어.” 후크가 투덜거리며 말했다. “집 잃은 소년들이 엄마를 찾았어!” “저런, 재수 없는 날이네요!” 스타키가 말했다. “선장님.” 스미가 말했다. “소년들의 엄마를 납치하는 게 어떨까요? 대신에 그녀를 우리의 엄마로 삼는 거예요.” 후크의 눈이 빛났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다!”

갑자기 선장은 타이거 릴리가 생각났다. “공주는 어디 있느냐?” 그가 물었다. “풀어 졌는데요.” 스타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장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요.” 스미가 말했다. “뭐라고?” 후크가 소리쳤다. “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 없어!” 그러나 후크는 해적들의 눈에서 진실을 볼 수 있었다.

**p. 54-55** 하지만 누가? 유명이었나? “이 어두운 호수에 나타난 유명아. 내 말이 들리느냐?” 피터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후크의 목소리와 똑같았다. “듣고 있다!” 해적들은 너무 무서웠다. “넌 누구냐?” 후크가 물었다. “말해!” “난 피터 팬이다.” 후크는 너무 화가 나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 스미!” 그가 소리쳤다. “너석을 잡아!” 후크와 해적들은 모두 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 잠시 후, 후크가 바위 위로 다시 기어올라왔다. 피터도 그랬다. 둘은 뭔가를 붙들려고 손을 뻗었다. 그때, 그들의 손이 닿았다. 그들은 서로 쳐다보았다. 둘은 깜짝 놀랐다. 후크 선장은 자신의 갈고리로 피터를 치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자신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

똑딱똑딱

“악어다!” 후크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물고기처럼 헤엄을 치며 보트로 갔다.

**p. 56-57** 피터와 웬디는 귀양살이 바위 위에 누웠다. 그들은 집으로 가야 했다. 그러나 그들 둘 다 너무 피곤해서 날 수 없었다. 그들은 또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물 밖에서, 네버랜드 새가 웬디와 피터가 곤경에 처한 것을 보았다. 네버랜드 새는 물에 사는 커다란

둥물이었다. 그 새는 자신의 둥지를 웬디와 피터에게 가져왔다. 그 새는 그들을 살며시 자신의 둥지 안에 넣고 뭍 위에 띄웠다. 그리고 나서 웬디의 피터를 땅 위에 내려놓았다. 그들은 무시했다! 그날 밤, 소년들은 낮에 겪은 모험에 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모험은 취침 시간이 지나서까지 자지 않는 것이었다. “자야지!” 마침내 웬디가 말했다. 그러자 소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떠났다.

#### [ 제 4 장 ] 줄리 로저호에서

**p. 60-61** 피터는 타이거 릴리를 구해 주었다. 이제 인디언들은 그를 위해 어떤 일든 하려고 했다. 그들은 그의 지하 집을 지켜 주었다.

아래에서, 소년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피터와 웬디는 그들을 행복하게 바라보았다. 곧 잠 살 시간이 되었다. 십 살은 소년들은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옛날에 한 신사가 있었어.” 웬디가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달링 씨였고, 그의 아내는 달링 부인이었지.”

“난 그들을 알아!” 존이 말했다. “적어도 그들을 알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 “그들에게는 세 명의 아이들이 있었어.” 웬디가 계속했다. “그리고 나나라는 착한 개가 있었지. 어느 날, 그 아이들은 네버랜드로 날아갔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다!” 첫 번째 쌍둥이가 말했다. “하지만 그 기묘한 부모를 생각해 봐.” 웬디가 말했다. “그들은 틀림없이 아이들을 그리워했을 거야.”

**p. 62-63** 웬디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들의 엄마는 그들을 몹시 사랑했어. 그리고 그녀는 항상 창문을 열어두었지. 그들은 그냥 안으로 날아 들어가기만 하면 됐어.”

“넌 엄마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어, 웬디.” 피터가 말했다. 소년들이 깜짝 놀란 것 같았다. “나도 예전엔 너처럼 생각했어.” 피터가 말했다. “난 엄마가 창문을 언제까지나 열어둘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몇 달을 멀리 떨어져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왔는데, 창문이 닫혀 있었어. 다른 남자들이 내 침대에 있었지.”

그 이야기는 아이들을 섬뜩하게 했다. “웬디 누나!” 존이 외쳤다. “집에 가자.” “그래.” 웬디가 말했다. “지금 당장 가자.” 피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p. 64** 웬디와 그녀의 동생들은 부모님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소년들은 자신들의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았다. “우린 너희가 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한 소년이 말했다. “그녀를 감옥에 넣어 버리자!” 다른 소년이 말했다. 소년들은 무척 슬퍼 보였다. 하지만 웬디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와 함께 가는 게 어때? 우리 엄마와 아빠는 너희들을 양자로 삼으실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돼, 피터?” 소년들이 물었다. “그래.” 하지만 웬디는 피터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보았다. 그녀는 피터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와 함께 가자, 피터.” 그녀가 말했다. “싫어.” 피터가 말했다.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린 네 어머니를 찾을 수도 있어.” “싫어. 난 어린 아이로 남아서 영원히 재미있게 지내고 싶어.” 피터가 말했다.

**p. 66-67** 바로 그때, 그들 위의 땅이 흔들렸다. 해적들과 인디언들이 싸우고 있었다! 웬디는 소년들을 감싸 안았다. 하지만 땅 위의 전투는 금방 끝났다. 소년들은 누가 이겼는지 궁금했다.



사실, 후크와 해적들은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어둠을 타고 공격해서 이겼던 것이다. 선장은 어떤 나무 쪽으로 말끝으로 살금살금 걸어가 그 밑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피터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들어 보자.” 피터가 말했다. “인디언들은 승리하면 언제나 북을 치잖아.” 후크가 스미에게 속삭였다. 스미가 미소를 지었다. 그런 다음 그는 북을 집어들어 치기 시작했다.

“북소리다!” 피터가 말했다. “인디언들이 이겼다!” 아이들은 환호했다. 이제 그들이 위로 올라가도 안전했다. 하지만 잠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p. 68-69** 그날 밤, 집 잃은 소년들은 잠들기가 힘들었다. 그들은 가서 인디언들과 함께 축하해주고 싶었다. 소년들은 한 명씩 그들을 찾으러 위로 올라갔다. 해적들은 그들이 올라오자 손쉽게 붙잡았다. 해적들은 소년들을 해적선 줄리 로저호로 데려갔다. 후크 선장은 피터를 찾으러 지하로 갔다. 피터는 잠을 자고 있었다. 그의 옆에 우유 한 컵이 있었다. 후크는 독이 들어 있는 작은 병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 그는 우유 컵에 다섯 방울을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그는 나무 위로 다시 올라갔다.

피터에게는 천만다행으로, 텅커 뱀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후크가 떠나자, 그녀는 피터의 겁을 뒤집어 었었다. “피터! 피터!” 텅커 뱀이 말했다. “해적들이 웬디와 소년들을 잡아갔어! 그가 그들을 줄리 로저호로 데려갔어.” 피터의 심장은 크게 뛰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p. 70-71** 피터는 숲 속을 달렸다. 보름달이 떠서 그는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피터는 행복했다. 그는 또다른 모험을 향해 떠났다! 그는 후크 선장으로부터 웬디와 아이들을 구해야 했다. 웬디는 줄리 로저호의 돛대에 묶여 있었다. 집 잃은 소년들이 바다 속으로 던져지려는 참이었다.

후크 선장이 웬디에게 말했다. “자, 나의 예쁜 아가씨, 당신의 아이들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볼 준비가 되었나?” 갑자기, 그는 움직임을 멈췄다. 푹푹푹

“날 숨겨 줘!” 후크가 외쳤다. 해적들이 선장 주위로 모여들었다. 집 잃은 소년들은 악어를 보려고 뱃전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것은 악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터 팬이었다! 그는 후크 선장을 겁주기 위해 시계를 가져왔던 것이다!

**p. 72-73** 피터는 선실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런 다음 그는 후크 선장 옆으로 뛰어내렸다. “아하!” 그가 외쳤다. “네 놈이구나!” 선장은 자신의 갈을 꺼냈다. “어리석은 녀석! 죽을 준비나 해라!” 피터 팬도 자신의 갈을 꺼냈다. 그는 갈싸움의 명수였다.

그들은 한참 동안 싸웠다. 마침내 후크 선장이 구석으로 몰렸다. 그는 달아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보트의 옆으로 후퇴하다 밖으로 떨어졌다. 후크에게는 불행하게도, 악어가 바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악어 뱃속에 있던 시계가 마침내 푹푹거리는 소리를 멈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후크 선장의 최후였다.

## **[ 제 5 장 ] 집으로**

**p. 78-79** 피터는 지금까지 엄마들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적어도 그는 달링 부인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웬디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면서 달링 부인이 창문을 항상 열어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터와 텅커 뱀은 다른 아이

들보다 먼저 방으로 날아 들어갔다. 그에게 계획이 있었다. “빨리, 킁크!” 그가 말했다. “창문을 닫고 잠기. 그러면 웬디는 나와 함께 다시 기야 할 기야.”

바로 그때, 그는 웬디의 엄마가 옆방에서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들었다. “돌아오 라, 웬디. 돌아와.” 웬디의 엄마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자 곧 노래가 그쳤다.

달링 부인은 눈물이 가득했다. 피터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언짢았다. “그래, 좋아.” 그가 말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p. 80-81** 웬디, 존, 그리고 마이클은 자신들을 위해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마이클은 자신들의 집에 관한 모든 것을 거의 잊고 있었다. “여기에 온 적이 있는 것 같아.” 그가 말했다. “여기가 네 집이잖아, 바보야.” 존이 말했다. 아이들은 줄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한번도 멀리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침대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달링 부인은 아이들 방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았다.

“엄마” 웬디가 외쳤다. “우리가 왔어요!” 달링 부인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팔을 뻗었다. 갑자기 그녀의 팔은 세 아이들로 가득 찼다. “조지! 조지!” 달링 부인이 외쳤다. “우리 애들이 집에 왔어요!” 달링 씨는 아이들 방으로 달려왔다. 그는 아이들을 껴안으며 울었다.

**p. 82-83** 달링 부부는 집 잃은 소년들을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피터도 입양하고 싶어했지만, 피터가 거절했다. 피터는 자기가 입양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학교에 보내고 열심히 공부하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직업을 구하고 결혼해야 할 것이다. 그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생활은 그에게 재미가 없었다.

“난 네버랜드로 돌아갈 거야.” 피터가 말했다. “난 우리가 웬디를 위해 지은 집에서 킁크 뽀와 함께 살 거야.” 달링 부인은 웬디가 가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현명한 제안을 했다. “웬디는 일년에 한 번씩 너를 찾아가도 좋아. 봄맞이 대청소를 하면 될 테니까.” 그 제안은 피터를 다시 기쁘게 했다.

**p. 84-85** 집 잃은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다녔다. 그들은 곧 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자 그들은 네버랜드에 간 적이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됐다.

첫해가 끝나갈 때, 피터가 돌아왔다. 웬디는 그와 옛날 이야기 나누기를 고대했다. 그러나 피터는 새로운 모험을 했다. 그는 예전의 모험을 잊은 것 같았다. “너 후크 선장 기억하지 않나?” 그녀가 물었다. “난 옛날 모험은 기억하지 않아.” 그가 말했다. “난 새로운 모험을 하자마자 옛날 모험들은 잊어버려.” 이것은 웬디에게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그 모험들은 웬디에게 너무나 큰 의미였다. 그런데 피터는 그 모험들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와 함께 네버랜드로 돌아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p. 86-87** 다음 해에, 피터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다음 해에는 왔다.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웬디는 자랐다. 그녀는 학교 생활로 매우 바빴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 세월이 흐르자, 네버랜드에 관한 그녀의 기억은 희미해져갔다. 웬디는 자기가 거기에 간 적이 있었는지도 의심이 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쯤이었다. 웬디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리고 나서 어느 행복한 날, 그녀는 여자 아이를 낳았다. 웬디는 딸에게 제인이

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 제인은 자신의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웬디는 다른 방에서 양말을 곱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 창문이 확 열리더니 피터 팬이 날아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소년이었다!

**p. 88-89** “안녕, 웬디!” 피터가 말했다. “너 있었어? 봄맞이 대청소할 때잖아!” “난 갈 수 없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난 이제 어른이야. 벌써 오래 전에 다 자랐어.”

그는 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의 흐느끼는 소리 때문에 제인이 깰다. 제인은 눈을 비볐다. “애.” 그녀가 말했다. “왜 우니?”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었다.

웬디의 딸은 네버랜드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녀 역시 딸을 낳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아름다운 세계로 갔다. 웬디 달링은 오래 전에 살았다. 그때부터 피터 팬에게는 항상 엄마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네버랜드의 존재를 믿는 아이들이 있는 한.